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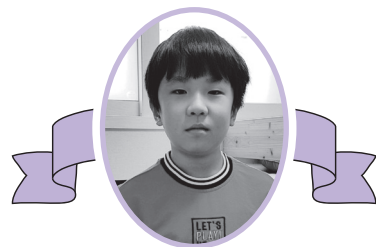
은상





국토연구원장상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



장연우 | 서울 영동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 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히 집에서 보내던 엄마와 나는 시골에 계시는 외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에 다녀오기로 했다.

끝날 줄 모르는 긴 장마 때문에 할머니네 가는 날도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대화나 핸드폰 통화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에 처음으로 시골 할머니 댁에 가는 거여서 두근거리고 신나기도 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볼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아 보고 또 봐도 좋기 때문이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엄마와 나는 깜짝 놀라서 창밖을 쳐다봤다. 택시는 남한강 위에 있는 다리 위를 달리고 있었고, 그 밑으로 처음 보는 시커먼 물줄기가 화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었다. 옛날에 보았던 투명하고도 파란 강물은 사라지고

강에 있던 작은 섬들도 사라졌다.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 한강을 자꾸자꾸 뒤돌아보며 슬픈 기분이 들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고 조금 더 걸어가자 저 멀리 우산을 쓰고 우리를 기다리는 외할머니가 보였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울 것 같았다.

“할머니!”

“그래그래, 오느라고 힘들었지.”

할머니 손을 잡고 마당에 들어선 나는 그 자리에 멈춤 해버렸다. 여름이면 텃밭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오이, 고추, 토마토는 보이지 않고, 구석에 작은 가지 세 개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비가 많이 와서 썩어서 다 뽑아버렸어. 내년엔 다시 심자. 저녁에 가지밥 해줄까?”

“아니에요, 할머니.”

쪼그리고 앉아 가지를 보고 있으니 그래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당 뒤횥에 가봤지만 거기에는 빗물에 쓸려온 나뭇가지랑 작은 돌멩이랑 흙더미가 쌓여있었다. 그 자리에는 나팔꽃과 호박넝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사실은 외할머니네 가면 텃밭에서 야채 친구들과 인사하고, 모기와 싸우고, 이름도 모르는 꽃들을 내 핸드폰 카메라에 담아두는 일들이 제일 신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속상한 마음에 점심도 대충 먹고 마루에서 멍 때리고 있을 때 엄마가 살그머니 내 옆에 앉았다.

“연우야, 너가 좋아하는 쓰담쓰담 노래나 들을까?”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음악소리가 들렸고, 툇툇툇 빗소리랑 음악이 박자를 맞추고, 박자 소리에 내 마음도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렸다.

“야옹, 야옹.” 앞집 강아지집 지붕 위로 배 쪽은 하얀 털, 등 쪽은 까만 털을 가진 고양이도 쓱 지나갔다. 못 보던 고양이 친구였다. 그리고 보니 길가에 있는 대추나무도 훌쩍 커져있었다. 대추가 많이 달리진 않지만 추석에 시골에 오면 대추나무를 흔들어 몇 개씩은 떨어져서 주워 먹기도 했었다.

“꼬끼오!” 특이하게 해가 질 때면 목청 높여 우는 꼬꼬도 그대로 살고 있었고, 옆집 담벼락에는 큰 호박 2개가 달려있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내 눈에는 새로운 시골 그림이 보였다.

조용히 조용히, 천천히 천천히 시간이 살금살금 지나갔고 흐린 날씨 때문에 총총총 하늘에서 숨박꼭질하는 별들은 볼 수 없지만 여전히 맛있는 할머니표 시골 된장찌개와 노랫소리 같은 빗소리에 만족하며 또 한 번의 추억을 마음속에 저장했다.

다음날 아침 엄마와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길에 또 다시 남한강과 만나게 됐다. 물살은 똑같이 거셌지만 어제처럼 무섭지는 않았다. 옛날에 보았던 한강이 조용하고 차분한 형이었다면 요번에 만난 한강은 급하지만 씩씩한 동생이다. 외할머니 시골마을도 예전에는 예쁜 얼굴을 보여주었지만 지금은 꾸미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할머니랑 작별인사를 하고 서울에 온 나는 시골에서 찍었던 사진을 출력해서 미니사진 노트를 만들었고 내 생각을 짧게 써넣었다.

산, 바다, 하늘은 늘 따뜻한 엄마처럼 우리를 감싸준다. 하지만 가끔은 상처를 입고 낮은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면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를 낮게 해줘야겠다.

우리 느린 걸음의 농촌과 빠른 걸음의 도시야,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그래도 사랑해!